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살았던 고2 학생입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쑥스럽고 민망하여 미루기만 하다 직접 전할 수 있을 때를 놓치는 바람에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꼭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전하고픈 마음은 사하구 하단동의 어느 GS25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언니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그 언니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알바생 언니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내어주시는 친절함과 애정어린 행동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따스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7년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아동급식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그때의 저는 그 카드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제 한 손에는 아동급식카드 2개를, 다른 한 손에는 동생의 손을 쥐어주며 심부름을 보내시던 저녁시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고 괴로워서 항상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동급식카드를 쓰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고 그랬나 싶지만, 사춘기의 중학생에게는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여기지기 알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제가 마치 찢어지게 가난하고 빈곤한 집에 사는 불우한 아이가 되는 것만 같이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런 비틀어진 감정들은 어쩌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카드를 내미는 순간, 묘하게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받게 되면서요. 그 시선을 느끼는 것이 너무 싫어서 심부름 가는 저녁시간마다 제가 어디로든 사라지길 원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는 꼭 모자를 꼭 눌러쓰고 갔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 집은 주로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편의점에 들머는 순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당 하루 2만원, 저희 집은 카드가 2개이니 4만원이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물건들만 찾아서 '1,800원.. 2,200원.. 600원..' 머릿속으로 양산하며 4만원 만큼 골라서 구매하는 일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벗어나 교복을 입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물건을 고르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편의점 직원분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더紧张해서 얼렁뚱땅 물건을 고르고 카운터에 가져가면 2번째 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고른 물건 중에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이 있거나, 4만원을 넘거나, 4만원에 많이 모자라거나 하면 또다시 눈치보며 물건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때는 이미 온몸이 굳어서 머리로 안 돌아가서 원래 꼭 사려고 했던 것은 도리어 빼고 저희 가족은 아무도 먹지 않는 물건을 시는 등 실수가 많아져서 엄마께 핀잔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발, 4만원 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마라. 못 시는 거 없애라. 제발, 한 번에' 이런 생각을 주눅처럼 되뇌이며 계산을 끝내고 편의점을 나서면 어느새 땀에 흠뻑 젖은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긴장의 연속인 심부름을 매번 다른 편의점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대던 저를 처음으로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GS25 하단동매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언니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큰 작은 계산 실수를 조금씩 한 후, 다른 편의점을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처음 간 날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한 채 물건을 골랐고, 긴장 끝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 제가 오랫동안 고르고 있기도 싫은 기색 없이 그저 가끔씩 살펴본 알바생 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시간이라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편의점은 꽤 붐볐고, 그래서 저희를 덜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방문했을 때도, 편의점의 분위기가 알바생 언니가 똑같았는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열심히 머리 굴려서 물건을 골랐는데 4만원이 넘는 겁니다. 40,300원. 백 만한 건 천원짜리 삼각김밥뿐이어서 그럴 배배겠다고 말씀드리고 700원 정도 살만한 게 있나 돌아보는 순간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버버거리며 그냥 그냥 이것만 계산하겠다고 알바생 언니에게 말씀드리니 “더 골라오셔도 돼요. 제가 다른 손님 먼저 계산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골라보세요~”라고 대답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렬에 카운터에서 벗어나 다시 물건을 보고 있으니, 다른 밀려있던 손님들의 계산을 끝낸 알바생 언니가 카운터에서 나와 저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700원 이내의 상품을 바로 찾아내기 어려워서 주춤했다고 하시면서요. 우유, 작은 컵라면, 빵 등등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제가 고른 걸로 계산해주셨습니다. 보통의 반응이 아니어서 저는 제가 품을 낀 것만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물건을 하나 빼달라고 하거나 새로 고르겠다고 하면 ‘아 딱? 하..’ 하는 생각을 표정에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친절하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랬습니다. 열렬 끝에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종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긴장해서 굳어있는 저를 보고 웃으시며 제 동생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보여주시던 모습, 동생이 고른 작은 우유하나와 그전에 제가 고른 4만원 어치의 적지 않은 물건들을 차곡차곡 제 장바구니에 나눠담아주시던 모습 등이요. 떠올리다보니 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다시는 안 가겠다 또 다른 편의점으로 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거기 가자!! 예쁜 언니 있던 거기~”라는 동생의 말과 함께 저도 으레 또 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다음날도 다음날도 또 가고. 저녁시간 저희가 가는 시간은 언제나 손님이 많았는데 저희에게도 다른 손님에게도 항상 친절하 알바생 언니를 보며 점점 그 공간 자체가 편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어 머리만으로 계산하는 저에게 언니의 스마트폰이나 계산기를 빌려주시기도 하고 적정금액보다 넘치거나 모자라게 물건을 골랐을 때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추가로 넣을지 저희와 함께 진심으로 고민해주시는 게 정말 감지했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부끄럽고 숨고 싶은 심부름이 언젠가부터는 친한 언니와 함께하는 즐거운 쇼핑시간처럼 다가와 어느새 저도 머릿속 그 저녁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처음으로 낮시간에 심부름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그 편의점을 갔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이 간식을 사주곤 했어서 이번에는 제가 사기로 하고 간 날이었습니다. 모두 다 컵라면을 먹기로 하고 갔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이요. 아담급식카드도 살 수 있는 것들이라 “오늘은 내가 사줄게!! 가자!”하고 편의점으로 당당히 들어갔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편의점에 들어서자 초콜릿이 더 먹고 싶어진 친구 하나가 자기는 초콜릿을 사겠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카운터에는 이미 저희가 고른 컵라면 4개와 삼각김밥 2개, 햄버거 2개가 있었고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민 순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도

초콜릿을 먹고 싶다. 과자가 먹고 싶디며 하니씩 끌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다음껏 고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과 과자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고, 저는 친구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쓴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동급식카드 쓴다고 말할까? 이걸로 살 수 있는 것만 고르라고? 싫어 쪽팔려. 애들이 나 거지라고 놀라는 거 아니야? 뒤에서 돈 없다고 불쌍하다고 놀리면? 양파 당하면 어떡해? 망했다. 나 가방에 돈 없나?' 온갖 고민을 하다가 '알바 언니가 제발 이거 아동급식카드로 못 산다는 말만 크게 안 해주면 좋겠다.. 제발' 하며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알바생 언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13,300원 결제 완료 됐습니다~ 여기서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담아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언니는 그냥 웃으며 저희가 고른 물건들을 끼만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단골 손님이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나봐요. 너무 멋있다. 친구들 좋겠네요 ㅎㅎ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신이 났습니다. '이제 아동급식카드 초콜릿도 살 수 있다! 아싸 대박. 나중에 집 갈 때 딱 사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나는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라 헤어지고 집 가는 길. 집 근처 편의점에서 초콜릿 몇 개를 고르자마자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은 이 아동급식카드로 못 사는데요?" 라고 하시는 편의점 직원분께 제가 아주 당당히 "아는데요. 이제 살 수 있는데요? 저 아까 낮에도 샀어요. 계산해보세요" 라고 말했고 결국 저는 초콜릿들을 사지 못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계산대에 나온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듣고, 자존심이 상해 삼각김밥 하나라도 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잔여금액 19,000원. 낮에 샀던 13,300원에 제가 빙금 산 삼각김밥 천원을 빼면 5,700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19,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알바생 언니가 저와 제 친구들이 모드로 아동급식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긁으셨나 봐요. 아마 언니가 쓰시는 본인 카드였을 겁니다. 그걸 깨닫고,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웃어주던 알바생 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뒤로 저는 다시는 그 편의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그 편의점에 갈 마음 뻔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전부터 외면하고 있던 몇 가지 일들이 제 양심을 쑥스러기 때문입니다. 그날 말고 다른 날에도 알바생 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선의들 말입니다. 제 동생이 편의점 치킨을 빈히 바라보고 있으면 실수로 치킨 많이 뒤졌는데 맛이라도 보라며 건네주신 치킨. 추운 겨울날 제 손에 쥐어주신 캔 커피, 4만원이 남게 물건을 골랐을 때 어쩔 이렇게 딱 맞춰 골랐냐며 4만원치만 아동급식카드 결제해주신 것 등등. 제가 모른 척 외면하며 지냈던 일들, 알면서도 모른 척 받아왔던 알바생 언니의 효의를 더이상 받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는 그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다가 1년 정도? 반년? 정도가 지난 후 한번 뽕고 싶어 들린 편의점에는 더이상 그 알바생 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제가 사하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그 일과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언니를 떠올리며 한번은 감사하다고 할걸 그랬다고 후회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내기를 몇 년. 올해 초에 중학교 시절 친구들(앞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ㅎㅎ)을 보러 오랜만에 와본 사하구에서 우연히 방문한 GS25 편의점에서 그 언니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듣는 사람도 알아지는 것처럼 만드느 언니의 밝은 인사소리라. 따뜻한 눈빛만큼은 약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커서 그 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될 것 같았지만 저는 한 눈에 알아봤어요. 너무 반가웠지만 여전히 웃기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저는 말 한 마디 못해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2주 정도 전에 또 그곳을 갈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꼭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겠다 다짐했는데 그 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올해초와 같은 일요일 점심쯤 갔는데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언니의 행방을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어 그냥 나왔고, 그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저 대신 주말에 가서 그 언니계신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속 다른 분이 계시더라는 말만 전해 왔습니다. 아마 그만두신 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언니. 비록 언니는 저의 존재를 잊으셨을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이제는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들이간 편의점, GS25 신평공단지에서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제가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그때와 같은 친구 셋 그리고 4년 전과 똑같이 카운터에 서계시는 알바생 언니.

옛날에 언니가 은근슬쩍 도리주셨던 일은 아직도 저만 알고 있지만, 제가 이동급식카드를 썼던 건 제 친구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정말 별 거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집 사정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런 것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건 다 언니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저희를 도리주면서도 불쌍하고 안쓰러운 눈빛은 전혀 없이 그저 친절하고 따뜻하게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 사정은 부끄러울 것도 슬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창 진학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올해 초, 언니를 다시 마주친 후 고민을 끝냈습니다.

저 사회복지학과로 가보려고요. 가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것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 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대학은 반쯤 포기하고 취업하려 했는데 올해 초에 만난 언니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중에도 공부를 하시는 건지 계산대 주변에 펼쳐져있는 책과 필기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저도 언니처럼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동생은 몇 년 전 언니가 계던 편의점에 한창 다니던 때에는 커서 편의점 사장님이 될 거라고 의치고 다녔었는데 요즘의 꿈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많이 어려워서 언니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며 물어봤는데 “예쁜 언니? 조롱 기억나~ 사랑 주는 언니!” 하던 거 있죠? 사랑도 주셨었나 보네요 ㅎㅎ.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에게서 받은 호의와 따뜻한 기억 평생 끌어안고 언니처럼 멋있는 어른으로 클게요. 다음생에 제게 친언니가 생긴다면 그게 언니였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고마웠지만 지금 생각하니 더 감사해요. 언니도 아직 어린 학생이셨을 거 같아요. 알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생활하는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셨을 텐데, 저희에게 나눠주신 것들도 그때의 언니께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 작은 마음이나마 같이 담아 보내요. 문화상품권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니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커서 꼭 성공해서 언니를 다시 찾을게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꼭 언니에게 닿길 바라며 이만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